

아주 좋은 날

AJU QUARTERLY MAGAZINE
2016 SPRING • VOLUME 44

cover artist

Gully
걸리

프랑스 출신의 작가 걸리는 그라피티 아티스트로 활동하다가 '빌려 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은 '차용미술' 장르를 접한 후 길거리 벽화에서 캔버스로 작업을 옮겨 왔다. 그는 얼굴 없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개인전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위장을 하여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체를 숨기는 것은 작품을 작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그만의 독특한 예술적 신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에게 친숙한 유명한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이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차용미술'의 방식으로 그는 세계 미술사를 빛낸 작가들에 대한 존경을 드러냄과 동시에 창작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작품의 또한 가지 특징은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그림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작품 안의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현재의 관람객이 엿보는 듯한 독특한 '그림 속의 또다른 그림'의 구조는 감상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선과 의미로 이미지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위 작품은 미국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인 스티븐 도하노스 Stevan Dohanos의 작품과 현대미술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데미언 허스트 Damien Hirst의 작품을 결합해 2014년에 만든 것이다.


 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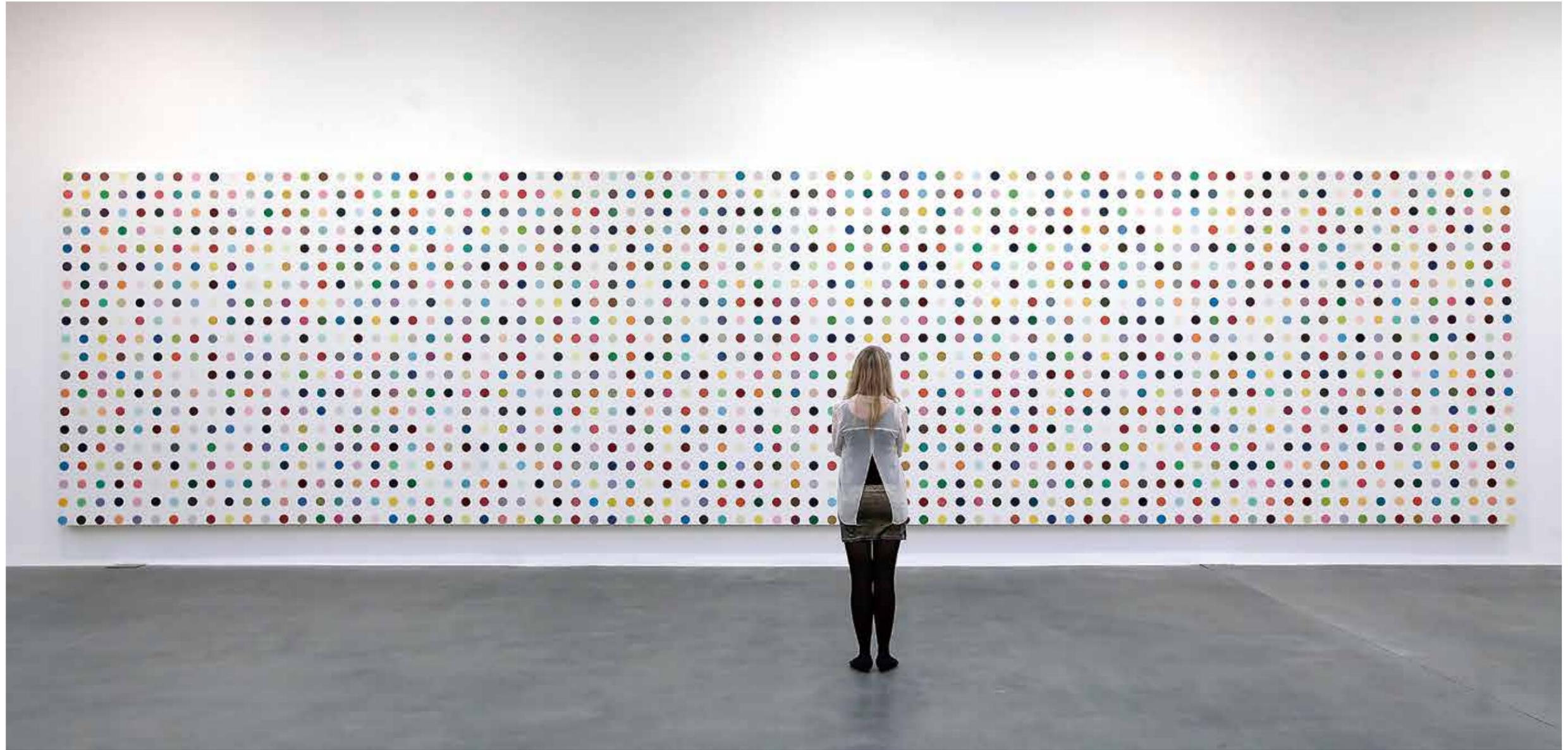

아주그림 매거진 『아주 좋은 날』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받아 보세요.



9 788998 482886 04070
ISBN 978-89-98482-88-6
ISBN 978-89-98482-77-0 (세트)



1. *Rapture*, 2003.
2. *Iodomethane- 13c*, 1999 - 2001.
3.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1991.



데미언 히스트 Damien Hirst

영국 태생의 데미언 히스트는 1991년 첫 개인전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죽은 상어를 넣은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후로도 그는 그로테스크한 작품들을 내놓으며 '현대미술계의 악동', '죽음의 예술가'라 불리며 현대미술을 이끄는 대표 아티스트로 올라서게 되었다. 죽음을 거부감이 들 만큼 극적으로 표현했던 데미언 히스트. 하지만 1986년부터 그는 그전까지의 작품과는 다른 느낌의 스폿 페인팅 시리즈를 선보인다. 형형색색의 원을 반복적으로 그려 넣은 추상 화인 스폿 페인팅 시리즈는, 밝고 화사한 색채 때문에 데미언 히스트의 작품들 중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경쾌한 이미지 덕분에 광고, 패션 등 다른 분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도 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고스란히 녹아있다. 각각 다른 모습의 원이 만들어낸 착시현상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게 만드는 스폿 시리즈는 밝고 화사함, 질서정연함 속에서 느껴지는 혼돈을 통해 그의 예술 핵심 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더욱 극적으로 돋보이게, 개념적이고 이성적으로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삶을 자극할 새로운 시도의 즐거움!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황량한 겨울을 이겨 내고 꽃망을
을 활짝 터트린 꽃, 마음을 살금살금 간질이는 바람까지
봄의 모든 몸짓이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 자체로 기분
 좋게, 마음이 사뽀사뽀 들썩이게, 생활을 활기로 가득하
게 만들어 주는 봄에는 우리 모두 겨우내 켜켜이 쌓아
 묵혀 왔던 감정들을 털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멈춰 있던 생각을 깨우고, 우리에게 영감
을 주어 굳어있던 몸을 펴고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 주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누군가의 작은 호기심에서, 엉뚱한 상상
속에서, 혹은 감정의 혼재,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 속에서
뜬금없이 튀어나와 삶에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선사해 줍
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시도가 전하는
행복한 자극을 느껴 볼까요?

아주 좋은 날



광릉요강꽃
그림. 송훈

『아주 좋은 날』은 다 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갤러리와
같은 매거진을 추구합니다. 예술과 문화,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품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02	gallery	새로운 시도의 즐거움
08	opinion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지평을 연 경이로운 개척자들!
10	insight	틀을 깬 시도, 최초의 한류 스타를 탄생시키다!
14	people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18	curator's choice	새봄에 찾아오는 새로운 몸 예술
Section 2.	Now + Moment	
21	road trip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제주의 길
28	trip gourmet	제주의 봄, 혼자 왕 먹읍서!
30	motor story	아름다운 고성능 세단 채규어 뉴 XJ
32	favorite things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 이원복 총장
36	scene of object	프로들의 카메라 NIKON F3/T
Section 3.	Aju + Style	
39	aju spirit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아주 특별한 스토리
44	aju sharing	아주 행복한 공부방 1호점, 꿈찾기 프로젝트
48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AJU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6년 4월 15일(통권 제44호) 발행처 아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안그래픽스 편집 이미리 디자인 박단비 인쇄 삼성문화인쇄 등록번호 서초 바00128호

『아주 좋은 날』은 개간으로 발행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은 한국간행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주 좋은 날』에 실린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아주 좋은 날』의 자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본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좋은 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기 연락처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2016008425)

우리의 삶을 깨워 줄 새로운 시도의 즐거움 • 아주 좋은 생각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색다른 시도 혹은 엉뚱하지만 기발한 발상을 통해 실현된 역작들을 살펴보며
새로운 시도가 선사하는 즐거움과 행복한 자극을 느껴 보자.

실연의 아픔에서 영감의 축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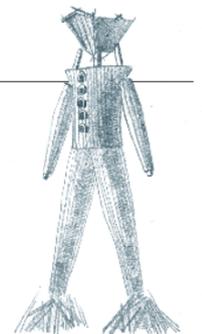
버닝맨 페스티벌 BURNING MAN FESTIVAL

사막에 세워지는 도시가 있다. 그곳은 일 년에 한 번 일주일간 세워졌다 다시 신기루처럼 모든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린다. 황량한 사막에 세워지는 이 뜻밖의 도시는 블랙록 시티, 지금까지 30여 년간 이어져 온 버닝맨 페스티벌을 위해 6만여 명의 사람이 모여들어 만드는 임시 도시다.

버닝맨 페스티벌은 1986년 정원사인 래리 하비가 실연의 아픔을 이겨 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해변가에서 약 3m에 달하는 나무 인간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강렬한 '버닝맨'이라는 이름도 그러한 퍼포먼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도시가 유지되는 일주일 동안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즐긴 뒤 태워 버린다. 사고나 체계에 대한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축제인 만큼 특이한 모습을 하고 다니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지만, 버닝맨 정신을 잇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스스로 의식주를 조달할 것, 어떠한 상업 시설과 광고도 배제할 것,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소각할 것이다.

진정한 창조, 자율, 공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버닝맨 페스티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참가자들은 버닝맨 정신을 이어가고자 27개국 120여 개 도시에 여러 소모임 단체를 만들어 환경, 재난 구호 등의 문제 대항에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구글과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버닝맨 정신'을 자신들의 핵심 문화로 선언하기도 했다. 소멸이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바꾼 버닝맨 페스티벌. 인생에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필요하다면 사막에서 소멸하며 창조하는 버닝맨 퍼포먼스를 생각해보자.

창조, 자율, 공유를 배우는 거대한 사막 축제 예술가, 환경운동가, IT 업계 관계자, 연예인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버닝맨 페스티벌. 이곳에서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소규모 마을, 테마 캠프 등을 만들어 자유롭게 작업을 하며 축제를 즐긴다.



www.burningman.org

분야를 넘나드는 창의적 예술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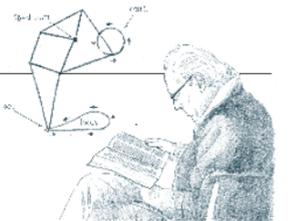
테오 안센. 해변동물
THEO JANSEN. STRANDBEEST

1990년 어느 날 네덜란드 해변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사와 철이 아닌 플라스틱 튜브와 빈 페트병, 나무로 이루어진 거대한 동물 모양의 물체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며 해변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이다. 이런 해괴한 물체를 만든 사람은 21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 불리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거장, 테오 안센이다. 그는 이 해변동물 시리즈를 통해 키네틱 아트의 거장으로 우뚝 서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키네틱 아트는 움직이는 예술이란 뜻으로,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 움직임이 있는 모든 작품을 가리킨다.

물리학을 전공한 테오 안센은 5년간의 히피 생활로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는 지경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DIY 가게에서 플라스틱 튜브를 본 뒤 이를 이용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이 일에 1년만 투자해 보자는 마음으로 작업에 몰두한 그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벌레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플라스틱 튜브로 실제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체를 설계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친환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낸 그에게 세상은 또 하나의 명예를 안겨 주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 인식을 바꾼 공로를 높이 사 2009년 유엔환경계획이 '테오안센상'을 제정한 것이다.

물리학자, 컴퓨터 공학자에 이어 예술가, 환경보호 활동가로 분야를 넘나들며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보여 주고 있는 테오 안센. "예술과 기술 사이의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그의 명언은 그가 융합의 시대의 진정한 대표 주자임을 말해 준다.

현존하는 최고의 키네틱 아티스트
그의 작품은 대부분 바람이 불면
날개로 풍력을 받아 움직이거나,
바람이 없을 때는 저장된 공기를 뿜어
움직인다.



www.strandbeest.com

PIIONEER



사이먼 래틀
Simon Rattle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지평을 연 경이로운 개척자들!

사이먼 래틀과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각 지휘자와 성악가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 시도로 인해 많은 이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고전적인 클래식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두 명의 개척자를 통해 새로운 시도가 만들어 내는 음악계의 변화, 더 나아가 세상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본다. 글. 장일범

파격과 기발의 아이콘, 지휘자 사이먼 래틀 카라얀 시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전통의 상징과도 같은 오케스트라였다. 중신상임지휘자인 카라얀은 황제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그의 지시에 복종했다. 카라얀이 불화로 사임하고 아바도의 시대를 거쳐 영국 지휘자로서 지방의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국제적인 레벨의 오케스트라로 끌어올린 ‘아이디어뱅크’ 사이먼 래틀이 2002년 새로운 상임지휘자로 추대되었다.

사이먼 래틀은 전임 지휘자들과 달리 오케스트라를 매우 즐겁게 이끌었다. 2016-2017년 시즌까지 베를린필을 지휘하고 물러난 후에는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자신의 악단을 옮기게 될 래틀은 임기 중 많은 업적을 쌓았다. 2015년에는 ‘Camera, Lights, Action’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베를린필의 시즌 마지막 공연인 발트뷔네 야의 공연에서 〈벤허〉, 〈툼과 제리〉, 〈레이더스〉, 〈스타워즈〉 등의 영화 음악을 공연하기도 했는데, 카라얀

이나 아바도의 시대라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사이먼 래틀은 현대음악의 옹호자로도 유명한데, 더 많은 사람이 현대음악을 감상하고 동시대를 이해하고 즐겨야 한다는 생각에 베를린필의 정기 연주회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난 한밤중에 베를린필 단원들이 연주하는 현대음악 콘서트를 하나 더 만들어 당일 공연 티켓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했으며 이 공연만을 보기 원하는 사람 또한 매우 저렴한 티켓 값으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베를린필 공연장 로비에서 점심시간에 연주하는 런치 타임 공연을 만든 일 역시 획기적이었다. 이 외에도 그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베를린필의 정기 공연은 물론 때로 해외 투어 공연까지 볼 수 있게 디지털 콘서트 홀(Digital Concert Hall)을 만들어서 베를린필을 좋아하는 전 세계의 팬들이 어디에서나 그들의 음악을 감상하도록 했다. 이 디지털 콘서트 홀의 파급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극장에서 감상하는 메트 오페라 HD와 함께 가장 유명한 클래식 콘텐츠가 되었다.

EXPER



플라시도 도밍고
Plácido Domingo

‘새로운 시도’가 만들어 낸 세상을 바꾼 기적의 앨범!



국경을 초월하는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1999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화음을 선사하는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신념을 갖고 묵심 있게 이끌어 가고 있다.



살아 있는 전설의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 평생 보자르 트리오의 피아니스트로 실내악만 하다가 90세에 드디어 솔로 피아니스트로 베를린필과 협연해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펼친 최고의 피아니스트. 그의 90세 생일 기념 공연을 음반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일정액을 지불하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등으로 베를린필의 공연을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로 또는 저장된 녹화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연뿐 아니라 귀한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어 전 세계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후배들이 부러워하는 팔방미인,

플라시도 도밍고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도 음악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인물이다. 도밍고는 원래 바리톤으로 출발했는데 멕시코 국립오페라극장에 오디션에 보러 갔을 때 심사위원들이 테너 곡을 불러 보라고 해서 결국 테너의 길을 걷게 된 독특한 케이스다. 세계 오페라 극장 무대를 모두 석권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3대 테너라고 불렸을 정도로 테너로서 모든 것을 누렸다. 그런데 그는 피아노도 잘 쳐서 위대한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의 반주를 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관현악곡과 오페라의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1981년에는 존 덴버와 함께

팝송 가수와 성악가가 함께 부르는 최초의 크로스오버 노래 ‘Perhaps love’로 국제적으로 크나큰 반응을 얻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는 오페라의 테너 주역으로 노래하면서 반주와 지휘도 하고 행정까지 맡았다. 미국의 워싱턴 오페라단과 LA오페라단의 감독(현재도 맡고 있다)으로서 단원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으며, 몇 년 전부터 고음이 흔들리자 다시 청년기 때의 바리톤으로 돌아가 ‘나부코’, ‘시몬 보카네그라’,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등에서 원래는 자신의 상대역이었던 역할들을 멋지게 해 나가고 있다.

방대한 오페라 레퍼토리를 불렀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가 바리톤으로 변신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전성기를 이어 가는 일은 유사 이래 전무후무하다. 젊은 바리톤들이 70대 후반의 도밍고를 질투할 정도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과감히 도전한 음악계의 개척자들은 음악인을 포함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환경에 순응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본인의 새로운 시도가 또 다른 새로움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선순환은 바로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말이다. “쉬면 녹슨다(If I rest, I rust).”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이 말을 곱씹어 보며 울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글쓴이 장일범은 음악평론가,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 경희대 겸임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명쾌한 해설과 재미있는 지식들을 풀어내는 강연으로 클래식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 주고 있다.



평탄치 않은 인생의 한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다

1563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허초희, 아니 허난설헌이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면, 동인의 우두머리 허엽의 딸로 태어났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며 명문가 사대부 김성립의 처가 되었다는 설명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허난설헌은 신사임당조차도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기억되는 판에 어떤 남성의 딸, 누이, 처가 아니라 시인으로 자기 목소리를 남겨 역사에 기록된 아주 드문 위인이다.

어려서부터 글과 그림에 재주를 보인 허난설헌은 아버지의 배려로 동생 허균이 글을 배울 때 함께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10대에 시집을 가셔도 시 짓기를 멈추지 않았고, 평탄치 않은 시집살이의 고난을 문학으로 승화했다. 허난설헌은 시작에 전념하면서 자기 배로 낳은 아들과 딸이 죽고 친정 집안사람들이 줄줄이 귀양 가고 죽는 모진 삶을 버텨 내다가 자기가 지은 주옥 같은 시를 죄다 태워 버리라는 말을 남기고 1589년 20대 중반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한중일을 아우른 여성 베스트셀러 작가

1592년 동북 아시아에 몰아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의 회오리 바람은 문학사에 예기치 않은 반전을 불러일으켰다. 왜가 조선을 짓밟자 위협을 느낀 명이 한반도에 보낸 군대에 오명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허균은 이 중국인에게 자기가 외우고 있는 누이의 시를 알려 주었다. 허균은 1606년에 명에서 온 사신들에게 허난설헌의 시를 더 보여 주었고, 두 해 뒤에 자기가 사신으로 명에 가서는 누이의 시를 엮어 책을 냈다. 명나라 문인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나온 허난설헌의 시문집은 중원의 종이 값을 올렸고, 나중에는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당시의 보편 문화였던 한시 문학을 두루 섭렵한 실력을 바탕으로 자기 애달픈 마음을 실어 읊은 허난설헌의 시는 동북 아시아에서 일어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바다 건너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제 나라 시만큼 사랑했다는 허난설헌의 시. 동북 아시아의 문화 교류 속에 태어난 허난설헌의 시는 이런 사실에 힘입어 더욱 빛이 난다고 할 수 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함양에서 자라, 홍콩에서 활약하다

한 지인이 자기 고향 경남 함양을 자랑하다가 함양이 낳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황정리를 꼽은 덕택에 황정리가 홍콩 배우가 아니라 한국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함양은 황정리를 낳지 않고 키웠다고 해야 맞다. 황정리는 1944년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고국으로 돌아와 함양에서 자랐다.

20대를 태권도 사범으로 보낸 황정리는 서른 살 즈음에 1970년대 한국 영화의 기수 이두용 감독의 눈에 띄어 1967년에 <돌아온 외다리>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데뷔하면서 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워낙 인상이 매서워서 악역만 맡았지만, 그가 구사하는 발차기 기술은 무척이나 호쾌해서 못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홍콩의 영화감독 오사원이 있었고, 그의 후원에 힘입어 황정리는 1976년부터 홍콩에서 배우로 활약하게 되었다.

배우에서 교수로 탈바꿈한 진정한 무술인

‘발차기의 제왕’이라는 별명답게 첩퇴로 공기를 가르듯 힘차게 내치르는 황정리의 발차기는 동북 아시아의 무술 영화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런 매력 덕에 그는 홍콩,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을 누비며 악역 전문 배우로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고, 그 후 활동의 폭을 넓혀 때로는 주인공, 때로는 영화감독,

때로는 연출자로 활약했다. 어느덧 쉰 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황정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199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텔레비전 드라마 <모래시계>와 그 이듬해에 나온 영화 <고스트 맘마>의 무술 감독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 뒤 황정리는 한 전문대학교에서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액션 연기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기도 했다. 2009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에 17세기 일본의 전설적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로 특별 출연한 황정리는 한 영화 저널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더 늙기 전에 멋진 연기 보여 줘야지”라고 연기에 대한 기업을 내뿜으며 무술인으로서의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북 아시아의 보편 문화였던 한자 문학과 쿵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드날린 원조 한류 스타들. 한때 동북 아시아를 풍미했던 허난설헌과 황정리 두 사람은 ‘최초의 한류 스타’라는 틀을 넘어 동북 아시아 사람들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끌어 낸 인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글쓴이 류한수는 현재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및 동북아역사 문화연구소 소장, 상명대학교 박물관장으로 재임 중이며, 신문 등에 역사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마케팅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지렛대, 즉
핵심 키워드가 '관점'이지요.



모든 것은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함을 부정하고 본질에 집중하며,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자 카카오, 네시삼십삼분, 선데이토즈, 브레오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그에게 응답했다. 국내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PYH 대표. 스스로 직업 명칭을 정하고 관점을 디자인하는 그를 2년간 홍보 업무를 담당해 온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의 탁용원 팀장이 만났다. '홍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공감한 두 사람. 관점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새로운 관점으로 향했다. 글 김희선 사진 장호 장소 제공 바 트렐브

탁용원 대표님은 국내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직업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용후 말 그대로 저는 관점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의 관점을 바꿔 줌으로써 미래를 변화시키는, 흔한 표현으로 마케팅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고객의 관점을 바꾸어 서비스나 제품을 달리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점을 디자인해야 하지요. 그래서 제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직접 네이밍한 것입니다.

탁용원 '관점 디자이너'란 직업 명칭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요.

박용후 11년간의 기자 생활을 뒤로하고 기업 홍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보와 업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었지요. 기업들의 홍보는 대부분 '널리 알린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한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지요. 단순히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CEO 인터뷰를 하는 게 홍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케팅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지렛대, 즉 핵심 키워드가 바로 '관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탁용원 그렇다면 국내 기업의 홍보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박용후 우선 홍보의 관점을 넓게 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 이야기거리를 던져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알려 주기'식의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서비스 또는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급급하지요. 한마디로

공급자 위주의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 '막케팅'이거든요. 홍보만을 위한 홍보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려면 어떤 관점을 공략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홍보를 하려면 RUF(Relevance, Useful, Fun) 법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탁용원 관점 디자이너로서 처음으로 홍보를 맡은 회사가 '카카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카카오톡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용후 카카오톡 같은 경우 메신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팀장님은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고맙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저 역시 없거든요. 메신저가 있으니까 사용할 뿐이지 특별히 고마울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왜일까요? 문자메시지 사용 시 들어갈 돈을 아껴 주기 때문입니다. 무료에다가 거슬리는 광고도 없으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메신저의 수를 공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아껴 주는' 고마운 서비스, 이모티콘을 통해 가난한 만화가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착한' 서비스로 느끼게끔 홍보했지요.

탁용원 카카오나 네시삼십삼분처럼 스타트업의 경우 새로운 시도가 조금은 용이할 듯합니다. 반면 역사가 오래된 회사, 특히 과거 성공담이 많은 회사는 그만큼 고정관념이 있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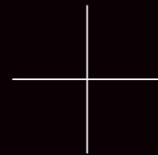
박용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질문은 사라집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지?'란 질문에 모든 이가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떨어지지'라고 생각했다면 뉴턴은 없었을 겁니다. 아르키메데스 역시 욕조의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를 외치기까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을 테지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성공한 기업은 'Why'에서 출발했습니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화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질문은 사라집니다.

생각이 움직이려면 고정관념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과 상식을 부정하세요.



생각이 움직이려면 고정관념이 없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싸여 있는 사람은 '왜?'라는 물음에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경험으로 축적된 것에 의한 대답일 테지요. 중요한 것은 '없는' 것과 '못 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것은 고정관념이지만 못 보았다는 말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거든요. 그러니 생각의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당연함을 의심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당연한 것과 상식을 부정하세요. 관점을 바꾸고, 틀을 깨고 나와 틀 밖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탁용원 직업의 명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업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업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관점도 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박용후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홍보해서 먹고산다', '글 써서 먹고산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란 생각들을 하지요.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향수 개발자가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말했어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 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한다"고. 자신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업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직업을 비하하지 말 것, 내 직업을 증폭시킬 것, 궁극적으로 잘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볼 것. 이를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인지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탁용원 기업은 물론 개인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통해 가능해질까요? 박용후 사람들은 일이 닳았을 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을 현명하게 만들어 줄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닳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6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벌여놓은 것 하나 없이 어머니에게 하루 2만 원의 용돈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되살려 현재와 비교해 보세요. 지금의 행동에 대해 '10년 뒤에도 잘한 일이라 생각할까?'를 반문하세요. 질문은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보를 하기보다 진화해야 합니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진화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탁용원 대표님의 말씀을 꼭 들어 보니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관점 디자인을 하실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끝으로 『아주 좋은 날』 독자들에게 아주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용후 마흔다섯 살 때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무엇을 벌여 왔느냐는 질문을 받았습시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벌여 왔다고.



↑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의 메모
바쁜 일상 속에서 메모가 가지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수많은 생각이 구체화되며 정리가 된다. 박용후 대표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휴대폰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벌었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 돈을 떠올리지요. 돈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경험, 지식, 행동 등 무수히 많은 것이 있거든요. 예컨대 누군가와 술을 마시는 것도 관계를 버는 행위일 수 있어요. 이렇듯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능력의 차이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느냐?'라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주인에게 드립니다. 인터뷰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아주 좋은 날』편집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팀 ajupr@aju.co.kr

새봄에 찾아오는 새로운 몸 예술



〈시간의 나이〉



〈봄의 제전〉

‘다시 몸으로 돌아가자’와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춤과 타 예술 장르와의 접목’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용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 중 하나다. 2016년 봄을 맞아 우리나라 무용계는 Back to the Body와 Crossover Dance, 이 두 가지 최신 경향을 담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것도 한국의 무용계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과 국립무용단이 공연하는 만큼 무용수들의 탄탄한 기량과 더 높은 예술적인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은 한껏 주목을 끌고 있다.

글. 장광열 사진 제공. 국립극장, 국립발레단



〈봄의 제전〉

무대에서 피어나는 혁신적 봄의 몸짓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역삼동 LG아트센터 무대에 올려질 국립발레단의 <봄의 제전(안무: 글렌 테틀리)>은 2014년 월드 스타 발레리나 강수진이 국립발레단의 새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고국의 관객들에게 선사한 작품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30분이 넘게 연속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강렬한 색채의 무대미술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발레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안무가는 만개한 봄의 기운을 인간의 신체를 통해 전하려 했고, 관객들은 초반에는 다소 생소한 움직임에 낯설어했지만, 이내 국립발레단의 무용수들을 통해 육중한 대지의 기운과 생명의 순환을 맞볼 수 있었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으로 잘 알려진 ‘봄의 제전’은 그 파격적인 음악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안무가가 이를 무용 작품으로 만들었다. 대부분의 안무가는 심금을 울리는 강렬한 대지의 음악에 매료되었다. 1974년 안무가 글렌 테틀리는 뮌헨발레단과 함께 <봄의 제전>을 만들었는데 러시아 슬라브족 이교도의 원시 제전에 국한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고대 신화와 신앙에서 존재해 왔던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그가 안무한 남성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대지적인 감수성은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호사를 누리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날 <봄의 제전>과 함께 공연되는 작품은 차이콥스키 음악에 여성 무용수들의 우아한 군무가 무대를 가득 채우는 조지 발라신 안무의 <세레나데>다. 관객들은 1부와 2부에서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진 작품을 만나게 될 것이다.



＋ 봄밤,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오는 오페라 <리날도>
바로크 오페라의 극치를 선보이는 오페라 <리날도>는 헨델의 오페라 중 가장 자주 공연되는 작품으로, 2007년 국내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 제7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 <파리넬라>의 대미를 장식한 곡이자 모두를 전율에 빠뜨린 아리아 ‘울게 하소서’를 2막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일시 : 2016. 5.6-8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영상과 무용의 색다른 크로스오버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 안무가 중에는 실제로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스페인 출신의 프랑스 안무가 조세 몽탈보(Jose Monalbo)는 이 같은 부류의 안무가 중에서도 톱 클래스에 속한다. 그의 안무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 <시간의 나이>는 바로 무용이 중심이 된 크로스오버 작품이다.

조세 몽탈보는 원래 영상을 전공한 안무가답게 이번 작품에서도 그의 전매특허인 비디오 영상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매칭해 특유의 감각을 보여 주었다. 영상과 무용수 간의 긴밀한 관계 설정은 물론 영상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이날로그적인 감성까지 불러일으키며 무대와 관객의 상호 교감을 구현해 오고 있는 그는 지난 1월 말부터 국내의 영상 스태프, 국립무용단 무용수들과 함께 실제 무대와 동일한 환경으로 꾸민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극장과 프랑스 샤요국립극장이 공동 제작을 한 국립무용단의 이번 신작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의 해’ 개막작이기도 하다.

<시간의 나이>는 과거를 축적하며 새로운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세 몽탈보는 “최근 현대 무용계는 과거의 것은 배제한 채 현대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오랫동안 전해져 온 한국 무용의 전통미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오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샤요국립극장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최근의 한국 무용계는 해외 유명 안무가들의 작품이 자주 소개되고 일급 안무가들이 객원 안무가로 초빙되면서 국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관객들로서는 다채로운 무용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무용은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순수한 예술 장르로 대우받는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무용은 더욱 순수의 상징으로 그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다.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무용 <시간의 기억>과 무용수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만끽하게 될 발레 <봄의 제전>은 그 새로움만으로도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예술을 통한 힐링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글쓴이 장광열은 무용평론가이자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대표, 월간 <춤웹진> 편집장 등으로 무용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동과 전환』, 『당신의 발에 입맞추고 싶습니다』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영어에서 가장 잔인한 표현

EXCUSE ME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Thank you'에서 'thank'는 '생각하다', '떠올리다'를 뜻하는 'think'의 한 형태였다. 'Thank you'는 '네가 해준 일을 꼭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겠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갚겠다'는 말이다. 영어의 경우 상대방의 '고맙다'는 말에 여러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하는 답변이 'You're welcome'이다. 'welcome'은 원래 'well+come', 즉 '잘 왔다'란 뜻이다. 보통은 가족이나 친한 손님이 왔을 때 '잘 왔어'라는 뜻으로 쓰이던 말인데, '내가 너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해준 일이니 빛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17세기 이후의 서양사회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는 'Excuse me'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Excuse me'의 원래 뜻은 '제발 고발하지 마세요'다. 'ex'는 '~에서 빠다'란 뜻이고 'cuse'는 '고발하다'인데 '이유', '원인'이란 뜻의 'cuse'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이 단어는 고발을 통해 범죄의 경유와 원인을 밝혀낸다는 데서 유래한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길에서 돈 많은 사람과 잘못 부딪히면 고의로 밀쳐 싸움을 걸거나 모욕을 주려 했다며 법정에 고발당해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선고를 받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Excuse me'는 '제발 법적인 조치에서 빠주세요!'라는 뜻이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딪힌 것이니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던 데서 유래했다. 결국 남과 부딪히는 순간 빛을 지게 되었으니 그 빛을 탕감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면에서 'Thank you'와 비슷한 문화적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서양사회에는 이렇게 매정한 표현들이 더욱 많아졌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중에서 영국의 한 교수가 내놓은 의견이 가장 흥미롭다. 이 교수는 유럽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평등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많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공격을 일삼는 잔인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매너'라는 것을 만들었다. manner는 '손'을 뜻하는 'manus'에서 나온 말인데, '자기 자신을 손에 쥐다', 즉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를 꼭 붙들어 긴장을 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보고 "와! 매너 좋다"라고 감탄하지만 그들의 매너 있는 말투와 제스처에는 '죽기 싫으면 절대로 이 선은 넘지 마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은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인문서다. 2016년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한다.

Now + Moment

라이프스타일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생텍쥐페리의 이 말은 여행 그 자체가 가진 순수한 목적을 다시 한 번 환기해 줍니다.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덜고 떠나는 여행이 진짜 행복한 여행일 거라는 말일 테지요. 짐을 가볍게, 욕심을 가볍게, 생각을 가볍게...

여행을 행복하게 즐겨보자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온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이성을 덜어 내니 제주도는 숨겨 놓은 제 속살을 보여 주듯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모습을 선사했습니다. 가볍게 떠난 제주도 여정은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봄, 당신의 여행도 꼭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둘러싼 길 위에서 만나는 제주도는 꾸밈없는 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는다. 사람 손이 닿아 화려해진 치장이 아닌 그 모습 자체로 매력적인 제주도를 더 가까이에서 느껴 보자.

글. 김태연(여행작가) 사진. 김태연(여행작가), 장호



영어에서 가

꾸밈없는 민낯의 제주도를 만나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제주의 길

바다를 둘러싼 길 위에서 만나는 제주도는 꾸밈없는 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는다. 사람 손이 닿아 화려해진 치장이 아닌 그 모습 자체로 매력적인 제주도를 더 가까이에서 느껴 보자.

글. 김태연(여행작가) 사진. 김태연(여행작가), 장호

EXCUSE ME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Thank you'에서 'thank'는 다. 'Thank you'는 '네가 해준 일을 꼭 머릿속에 간'는 말이다. 영어의 경우 상대방의 '고맙다'는 말에 여 'You're welcome'이다. 'welcome'은 원래 'well+co'님이 왔을 때 '잘 왔어'라는 뜻으로 쓰이던 말인데,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17세기 이후의 서양사회가 얼마나 살벌했 'Excuse me'의 원래 뜻은 '제발 고발하지 마세요'다 데 '이유', '원인'이란 뜻의 'cuse'와 같은 어원을 갖 밝혀낸다는 데서 유래한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움을 걸거나 모욕을 주려 했다며 법정에 고발당해 벌 고 한다. 그래서 'Excuse me'는 '제발 법적인 조치에 닦힌 것이니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던 데 으니 그 빚을 탕감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면에서 ' 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서양사회에는 이렇게 매정 이 있다. 그중에서 영국의 한 교수가 내놓은 의견이 기 등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많이 생겼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공격을 일삼는 진 다. manner는 '손'을 뜻하는 'manus'에서 나온 말인 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를 꼭 붙들어 긴장을 풀지 매너 좋다"라고 감탄하지만 그들의 매너 있는 말투와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은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





송악산의 기암절벽, 그로부터 시원하게 뻗어 있는 해안도로, 바다에 떠 있는 형제섬, 맞은편으로 우뚝 선 산방산, 그리고 가까운 듯 멀리 듬직한 한라산까지 한눈에 담기 아까운 전경을 모두 가진 곳. 사계바다는 실로 엄마품처럼 부자다.

바다를 따라 드라이브를 할 때 주변의 섬과 산은 눈을 더 즐겁게 해 주는 포인트 같은 존재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 사계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형제해안로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다. 운전을 절로 멈추게 만드는 빼어난 풍광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 그 앞에 펼쳐진 가파도, 형제섬, 송악산, 산방산, 그리고 한라산은 형제해안로의 드라이브를 더욱 빛내 준다. 마라도로 힘차게 출발하는 유람선을 보며 제주도의 봄 향기 가득한 드라이브를 시작해 본다.

엄마 품 같은 형제해안로를 달리다

형제해안로의 드라이브는 송악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드라이브를 시작하기 전 잠시 송악산 돌레길에 올라 사계해안을 내려다보자. 돌레길은 해안 절벽에 있는 산책로로 조금만 올라도 사계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돌아 보니 사계바다의 우아한 곡선미가 드러났다. 마치 아이들을 향해 두 팔을 뻗은 푸근한 엄마의 품과도 같다. 그래서일까, 그 앞에 있는 두 섬의 이름도 마침 형제섬이다. 송악산의 기암절벽, 그로부터 시원하게 뻗어 있는 해안도로, 바다에 떠 있는 형제섬, 맞은편으로 우뚝 선 산방산, 그리고 가까운 듯 멀리 듬직한 한라산까지 한눈에 담기 아까운 전경을 모두 가진 곳. 사계바다는 실로 엄마 품처럼 부자다.

유독 선명하게 보이는 한라산과 바람이 좋아 조금 더 걸었다. 송악산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남쪽으로 청보리가 유명한 가파도와 더 멀리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까지 보인다. 송악산 아래에선 마라도 가는 유람선이 출발하고 있다. 그 유람선에서 송악산 해안 절벽의 주상절리를 감상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관광 포인트다.

잠시 걸어 본 송악산 돌레길을 내려와 천천히 출발했다. 형제해안로는 송악산과 사계리 해안을 잇는 약 4.4km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그리 긴 구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형제해안로를 사랑하고 많이 찾는 이유는 달리는 동안의 경치가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기 때문이다. 속도를 내기 아까워 방해받지 않고 천천히 달리고 싶은 길이다. 송악산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달릴 때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볼 수 있다.

바닷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형제섬이 조금 더 가까이 보인다. 형제섬은 작고 큰 두 개의 섬이 사이좋게 가까이 마주 보고 있어 형제섬이라고 불린다. 얼핏 작아 보이는 섬이 아우 같지만 어떤 선장님께 들었는데 작은 섬이 실제로 훨씬 넓어 형이라고 한다. 형제섬은 일출이 아름다워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해맞이 명소다. 많은 사진 마니아가 새벽녘 사계해안을 찾아 형제섬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담는다.

형제섬을 지나 사계해안까지 매끈하게 뻗어 있는 그 길가에 흥미로운 곳이 또 하나 있다. 사계 주변의 멋진 자연은 분명 선조들에게도 매력적이었던가 보다. 그곳에 사람과 동물들이 살았던 흔적인 제주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가 있다. 제주 사람발 자국 화석은 그 생성 시기에 따라 화석이나 아니나가 결정되는데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사람과 동물, 새 등이 살았던 흔적임은 분명하다. 학계의 검증을 거쳐 천연기념물 제 464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보호 구역으로 통제되어 들어갈 수 없다. 대신 해안도로를 따라 설치된 사진으로나마 그 지역에 살았던 동물들과 사람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통제 구역인 화석 지대를 지나자마자 크고 작은 구멍이 송송 뚫린 누런 암석 지대가 펼쳐진다. 이는 송악산의 화산재가 파도에 깎여 나가 해안가에 쌓인 하모리층이다. 간혹 이곳을 화석 지대로 오인하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얇은 구멍은 발자국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전에는 그 파인 구멍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고 한다.

- 1
 - 2
 - 3
-
1. 사계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송악산 돌레길
 2.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선정된 형제해안도로
 3.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방산 근처의 유채꽃밭



형제해안로는 자동차 여행자만을 위한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인 동시에 올레길 10코스로 도보길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사계의 멋진 풍경을 자동차 여행자와 올레꾼이 공유할 수 있다. 삼삼오오 걷고 있는 올레꾼을 지나 사계해변에 이르니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봄이면 바다에 들어가기엔 아직 이른 듯하지만 서퍼들은 3월부터 파도를 가른다.

사계바다를 뒤로하고 막다른 길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트니 그 동안 마주하고 달렸던 산방산이 쏟아질 듯 가까이 보인다. 몇 가지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산방산은 한라산의 봉우리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백록담의 움푹 팬 분화구의 크기와 산방산의 크기가 비슷하고 자생식물이 일치한다고 하니 신비로울 따름이다.

산방산은 높이 395m로 남서쪽에 산방굴이라는 자연 석굴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을 안치해 산방굴사(山房窟寺)라고도 부른다. 산방산으로 가까이 갈수록 제주도에 봄이 이미 무르익었음을 느낄 수 있다. 산방산 아래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이미 온통 노란 물결로 일렁이고 있었다. 너도나도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사계해안을 바라보고 찍거나 산방산을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찍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산방산 일대의 유채꽃밭은 사유지로 1,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화사한 제주 봄 여행의 추억을 남기는 데 1,000원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유채꽃을 감상하기 위해 차를 멈춘 김에 이곳에 오면 꼭 들르는 용머리해안으로 내려가 보았다. 용머리해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신비를 보는 듯 벽차오르는 감동을 주는 곳이다.

용머리해안은 한라산이 생기기도 전, 바닷속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180만 년 전 사계리 앞바다에서 제주도 최초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물이 쌓여 생성되었고 그 후 수만 년간 파도와 바람에 깎여 지금의 장관이 되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용이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용머리해안이라고 한다. 용머리해안을 차에서만 내려다보고 지나간다면 1%도 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용머리해안의 매력은 직접 해안가로 내려가서 보아야 알 수 있으니 솔한 세월이 만든 대자연의 신비와 해식절벽의 웅장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곳은 지질 교과서라고 칭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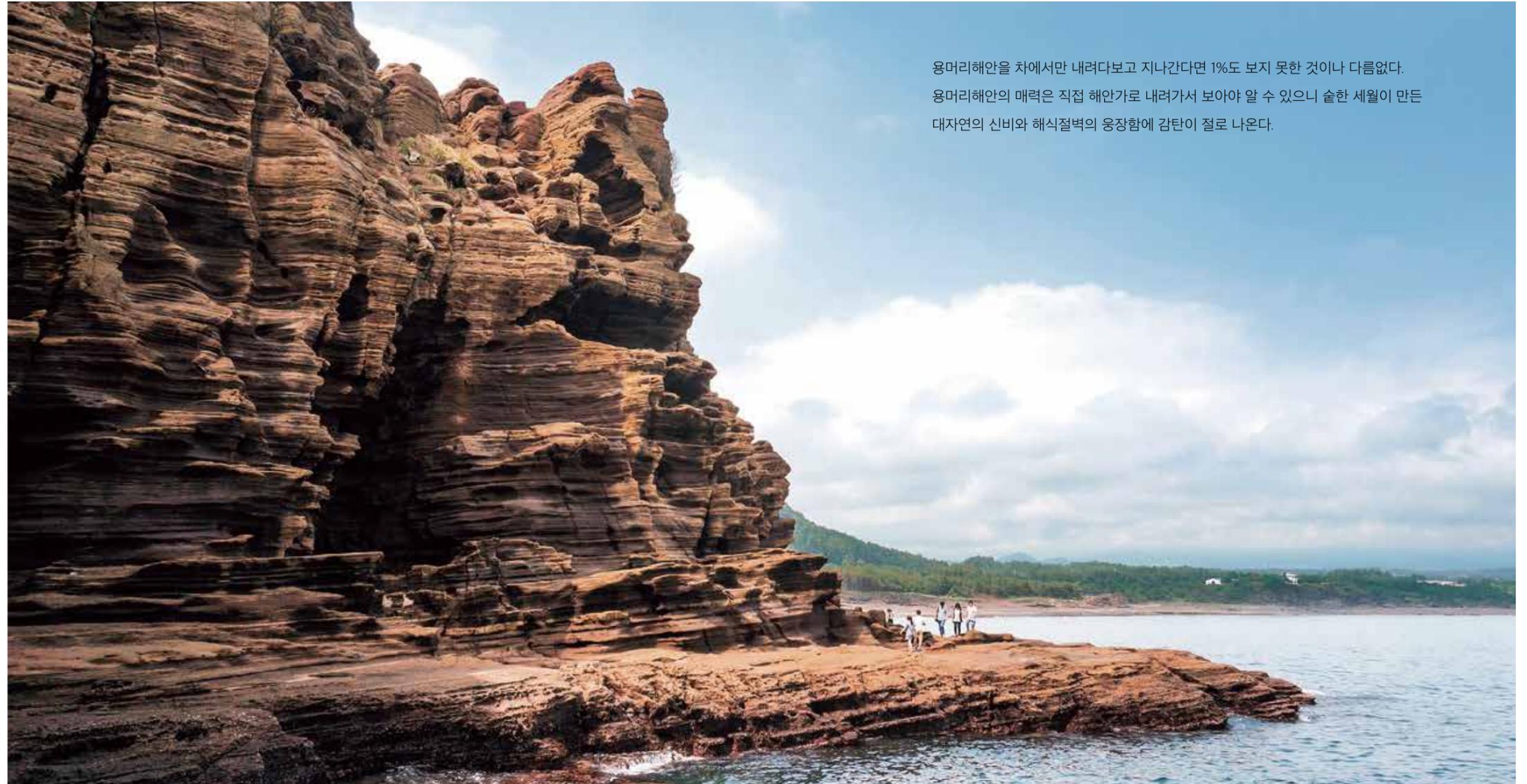
쉬어 가는 길, 예술과 만나다.

사계를 뒤로하고 안덕계곡을 지나 한라산 방향의 중산간으로 달려 보았다. 해안 도로에는 시원시원한 전망에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짜릿함이 있다면 제주도의 중산간 도로는 다소 좁은 굽이굽이한 길이지만 발담과 돌담, 그리고 돌집이나 굴밭, 굴 창고, 마을 어귀의 풍낭 등을 지나며 제주도 시골 마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게 해 준다. 물론 제주도의 중산간 도로에서는 차가 막히지 않아 여유롭게 제주도 냄새 가득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본태박물관이다.

본태박물관은 건축가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1995년 수상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마라도가

지 내려다보이는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본태박물관은 전통의 담장과 기와, 단아한 선으로 대표되는 한국미와 안도 다다오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미, 그리고 천혜의 경관을 가진 제주 자연, 이 삼박자의 조화가 딱 맞아떨어진 박물관이다. ‘본태’라는 이름은 본래(本)의 형태(態)라는 의미로 인류 본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한다는 정신을 담았다.

본태박물관은 전통 공예품과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전시관 사이 한국의 전통 담장과 냇물이 전통과 현대를 부드럽게 이어 주는 동시에 조화롭게 공존시킨다. 현대미술관이 천고가 높아 개방감이 시원한 공간이라면 전통미술관은 작고 내향적이며 아래로 향한 공간으로 대조를 이룬다. 이곳에서는 넓은 벽면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조각보와 9개 층의 타워형으로 웅장하게 전시해 놓은 다양한 소반 등 한국 전통의 수공예품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각보는 그 손맛 어린 정성과 색감의 조화, 옛 여인들의 지혜, 아름다움에



1
2

1. 녹색 암반층과 검은빛이 도는 모래가 깔린 사계해안
2. 특색 있는 기암절벽인 용머리해안

용머리해안을 차에서만 내려다보고 지나간다면 1%도 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용머리해안의 매력은 직접 해안가로 내려가서 보아야 알 수 있으니 솔한 세월이 만든 대자연의 신비와 해식절벽의 웅장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매료된다. 제3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가인 쿠사마 야요이의 조형물 2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여행을 하면서 예술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얻는 시간을 갖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영감이 떠오르거나 나도 모르게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여행 자체가 힐링의 과정이긴 하지만 일정 따라 가기에만 급급하기보다 가끔 뇌를 쉬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여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게 여행 고수들의 조언이다.

본태박물관에서의 힐링이 좋았던 까닭에 다음 날에는 더 욕심을 부려 보았다. 날씨가 도와주니 외투도 필요 없는 완전한 봄날이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라면 자연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서귀포에 있는 작가의 산책길이다. 유토피아라고도 부르는 이 길은 이중섭, 현중화, 변시지 등 서귀포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던 유명 예술가들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보도 탐방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아울러 현업 작가들의 그림, 조형 작품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접목해 만들었다. 4.9km에 걸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이곳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작가의 산책길을 관람하는 동안은 잠시 차는 잊고 걸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중섭거리와 셋기정공원, 칠십리시공원, 자구리문화예술공원, 서복전시관, 소암기념관을 잇는 코스로 천천히 걸을 경우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1코스, 2코스로 나뉘어 있으니 선택해 반만 구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중섭거리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도와 작품 해설이 있는 리플릿을 받아 출발하면 작가의 산책길 여행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시작, 여행은 계속된다

제주도 서쪽 형제해안로에서 시작된 여행이 제주도의 정가운데인 서귀포를 지나 어느덧 쇠소깍까지 왔다. 예전에는 이렇게 유명했던 곳이 아니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랜만에 찾은 쇠소깍에는 제주관광지의 대표 주자답게 굴칩과 천혜향 아이스크림, 굴 하르방빵 등 제주 먹거리가 많이 생겼다. 바삭한 굴칩을 하나 사 들고 관람로를 따라 걸었다. 예전처럼 고즈넉한 느낌은 아니지만 소나무 그늘에서 쇠소깍의 파란 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을 정화하는 데 그만이다.

올레길 5코스에 위치한 쇠소깍은 계곡과 만나는 곳으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깊은 골짜기다. 협곡을 따라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의 절경 그리고 깊고 투명하면서도 신비로운 파란빛을 띠는 물빛이 어우러진 풍경은 너무나 매력적이라 쇠소깍을 자꾸만 찾게 만든다. 쇠소깍을 제대로 즐기려면 테우를 타 봐야 한다. 테우는 나무로 만든 제주의 전통 뗏목으로 물 위를 왔다갔다 하며 쇠소깍의 협곡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테우 체험 예약을 놓쳤다면 투명 카약이나 수상 자전거 등을 타보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마스크를 통해 쇠소깍의 다양한 레저가 자주 소개되어 제주 여행객 사이에 인기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았다.

빠져들 듯 파란 쇠소깍에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주차장으로 올라오니 유명 관광지라는 것이 다시 실감 났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 조용한 해안 마을인 위미에 다다랐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나도 모르게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 시간을 즐겼다.



- 1
- 2
- 3

1. 보자기, 고가구, 소반 등 전통 수공예품을 전시하는 본태박물관
2. 안도 다다가 설계한 본태박물관의 외관
3. 작가의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벽화



TIP. 특별한 제주의 봄을 만날 수 있는 곳



젠하이드어웨이제주 전면 창을 통해 세계 바다와 마주하고 있어 어떤 자리에 앉아도 바다와 하늘이 잘 보이는 시원한 뷰를 자랑한다. 왼쪽으로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용머리해안과 산방산이 보이는 명품 절경이 펼쳐진다. 인기 메뉴는 단호박 크림소스안심, 제주새우까수엘라, 시금치샐러드피자.
ADD.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86-8
TEL. 064-794-0133



- ROUTE
- 1 송악산
 - 2 형제해안로
 - 3 제주 사람 발자국,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
 - 4 용머리해안
 - 5 유채꽃밭
 - 6 용머리해안
 - 7 쇠소깍



군산오름 군산오름은 빙 둘러 한라산, 중문, 산방산, 송악산, 가파도, 마라도까지 보이는 곳으로, 제주도의 남서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오름이다. 안덕계곡 쪽에서 오르면 꽤 높은 곳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어 정상까지 5분 정도만 걸으면 된다.
ADD.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564



중문달빛걷기 유채꽃은 제주도 도로변 돌담이나 밭담 옆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중문달빛걷기'는 조금 더 특별하다. 이곳은 매년 서귀포 유채꽃 걷기대회가 개최되는 곳으로, 사진 촬영 장소로 많이 찾는다. 꽤 넓은 유채꽃밭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ADD.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 주차장



황우지해안 올레길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7코스다. 드라마 <대장금>의 배경으로 유명한 외돌개가 있는 곳으로 해안을 따라 기암절벽이 이어져 걷는 내내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다.
ADD.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795-1 카페 솔빛바다 아래 바다

입 안 가득 느끼는 제주의 봄 혼저 왕 먹음세

정리. 이미리 사진. 장호



싱싱한 해산물은 물론 쫄깃한 맛이 일품인 흑돼지 등 여러 가지 산해진미가 가득한 제주지만 그중에서 '맛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별미로 손꼽는 것이 바로 딱새우다. 제주도과 남해 부근에서 많이 어획되는 딱새우의 표준명은 가시발새우.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딱딱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딱새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토파즈 같은 신비로운 푸른색의 알을 품고 있는 딱새우는 부드러우면서 달짝지근함이 은은히 감도는 새우 특유의 맛이 특징으로, 찜이나 구이, 회, 튀김까지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하든지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는 싱그러운 봄을 맞아 제주 특산품으로 만든 '딱새우 케이크 (&부라타 치즈를 곁들인 토마토 샐러드)'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의 자랑인 당도 높은 당근 주스와 파인애플을 이용한 '제주 당근 벨루테 수프', 제주 쾡과 가파도 보리의 조화를 꾀한 '가파도 보리 리조또'로 입 안 가득 봄의 기운을 전해 주고 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 총주방장 전관수 셰프 캐나다 파크 하얏트 토론토 총괄주방장, 그랜드 하얏트 인천 부총주방장을 역임한 전관수 셰프는 2015년부터 하얏트 리젠시 제주 총주방장으로 조리팀을 이끌고 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최상의 조화를 이뤄내는 조리법을 연구하며 국내외 그만의 정통성 있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제주 딱새우 케이크 & 부라타 치즈를 곁들인 토마토 샐러드

1인분 기준 / 시간 : 45분 / 딱새우 패티 : 딱새우 35g, 마요네즈 2g, 디종 머스터드 1g, 우스터소스, 타바스코 소스, 빵가루 5g, 달걀 2g, 파슬리·소금·후추 약간씩 / 샐러드 : 아보카도 30g, 적양파 5g, 적피망 5g, 레몬 주스 3ml, 고수 4잎, 소금·후추 약간씩

- [1] 신선한 딱새우의 껍질을 까고 등에 있는 내장을 제거한다. [2] 달걀, 마요네즈, 디종 머스터드, 우스터소스, 타바스코 소스를 넣고 잘 섞는다. [3] [1], [2]를 섞은 후 빵가루, 파슬리 찹, 소금, 후추를 발라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색이 날 정도로 굽고, 오븐에서 속까지 익힌다. [4] 딱새우가 익는 동안 아보카도 살사를 만든다. [5] 직사각 접시에 발사믹 크림으로 디자인을 한 후 왼쪽 코너에 아보카도 살사를, 그리고 그 위에 잘 익은 딱새우를 놓은 후 오른쪽에 토마토 샐러드와 새싹을 담아 마무리한다.



power and beauty

아름다운 고성능 세단 재규어 뉴 XJ

글. 김형준 (모터 트렌드) 한국판 편집장

사진 제공. 재규어코리아

질곡의 세월을 겪은 1980년대 재규어

재규어 기업 정신과 제품 철학의 모든 것은 창업자 윌리엄 라이언스 경의 손과 머리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스터 재규어가 남긴 마지막 작품인 XJ 시리즈 1은 당대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스포츠 세단이었다.

시리즈 1의 일생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개선한 모델, 즉 XJ 시리즈 2와 3(1973~1992년)은 달랐다. 외부 환경의 변화 탓이었다. XJ의 후속 제품 개발은 1970년대 초부터 진행했지만, 모기업의 경영 악화에 오일 파동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개량 모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10여 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세상에 등장했다. 바로 1986년에 나온 X40 XJ였다. 재규어는 차체 외부 부품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부품 수가 줄자 차가 가벼워지고 정숙성도 좋아졌다. 하지만 X40 시리즈

는 XJ답지 못한 디자인 때문에 줄곧 손가락질을 받았다. 고유의 원형 헤드램프를 대신한 네모반듯한 헤드램프 때문이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재규어 XJ의 부활

X40 시리즈는 이듬해 새로운 X300 모델에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다. X300 XJ는 'XJ의 새로운 시리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생산 설비까지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며 만든 야심작이었다. 핵심은 오리지널 XJ를 연상케 하는 곡선미 넘치는 스타일이었다. 네 개의 독립된 원형 헤드램프가 부활했고 그에 따라 특유의 보닛 주름도 되살아났다. 하지만 오리지널 모델의 스타일에 가뒀진 XJ는 기세가 한풀 꺾인 지 오래였다. 경쟁 모델은 성능과 품질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한 터였다. 2003년 등장한 X350 시리즈 XJ는 혁신의 출발점이었다. X350 XJ는

항공 우주 기술로 완성한 알루미늄 모노코크 새시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실내 공간과 트렁크 용량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확대했다. 동급 모델에서 찾아보기 힘든 에어 서스펜션은 재규어 고유의 유연한 움직임을 빚어냈다. 영국 미디어는 XJ의 부활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모두가 21세기의 XJ에 만족하는 분위기였지만 재규어 수석 디자이너 이언 칼럼만은 달랐다.

재규어의 미래를 이끄는 이언 칼럼

그는 재규어와 XJ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인물이었다. 이언 칼럼은 1979년 포드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경력을 시작했다. 수석 디자이너로 재규어에 합류한 건 1999년의 일이었다. 재규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젊은 디자이너들로 새로운 팀을 꾸리고 미래 디자인의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 갔다. 그리고 2009년, 이언 칼럼의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반영해 출시한 X351 XJ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네 개의 원형 헤드램프와 보닛에 그네 네 가닥의 날카로운 주름, 호(弧)를 그리며 차체 측면을 파고든 캐릭터 라인 등 소위 말하는 '윌리엄 라이언스' 라인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오리지널 XJ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전혀 재규어 같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XJ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40여 년간 그 스타일을 유지했죠. 우리는 시대에 맞춰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의 XJ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차입니다. 오리지널 XJ가 당시의 최고로 꼽히는 것처럼요."

지난 1월 재규어 뉴 XJ를 출시하면서 이언 칼럼과 재규어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21세기의 '미스터 재규어' 이언 칼럼이 재해석한 XJ는 최근 더욱 현대적인 모습으

로 탈바꿈했다.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더블 J' 주간주행등으로 재규어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했다. 인테리어는 요트에서 영감을 받은 트윈 니들 스티칭 방식의 천연 가죽 시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리어 시트 등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한층 높였다. 인컨트롤 터치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풀 LED 헤드램프와 지능형 하이빔 어시스트,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등의 첨단 기능도 듬뿍 담았다.

그는 지난 2월 재규어 뉴 XJ 출시 기념 행사인 '재규어 XJ 레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재규어를 정의했다.

"재규어는 모든 모델에 고성능의 가치와 기품을 담아냅니다. 그게 바로 재규어 디자인의 철학입니다."



1986 JAGUAR X40 XJ



1994 JAGUAR X300 XJ



2005 JAGUAR X350 XJ



2009 JAGUAR X351 XJ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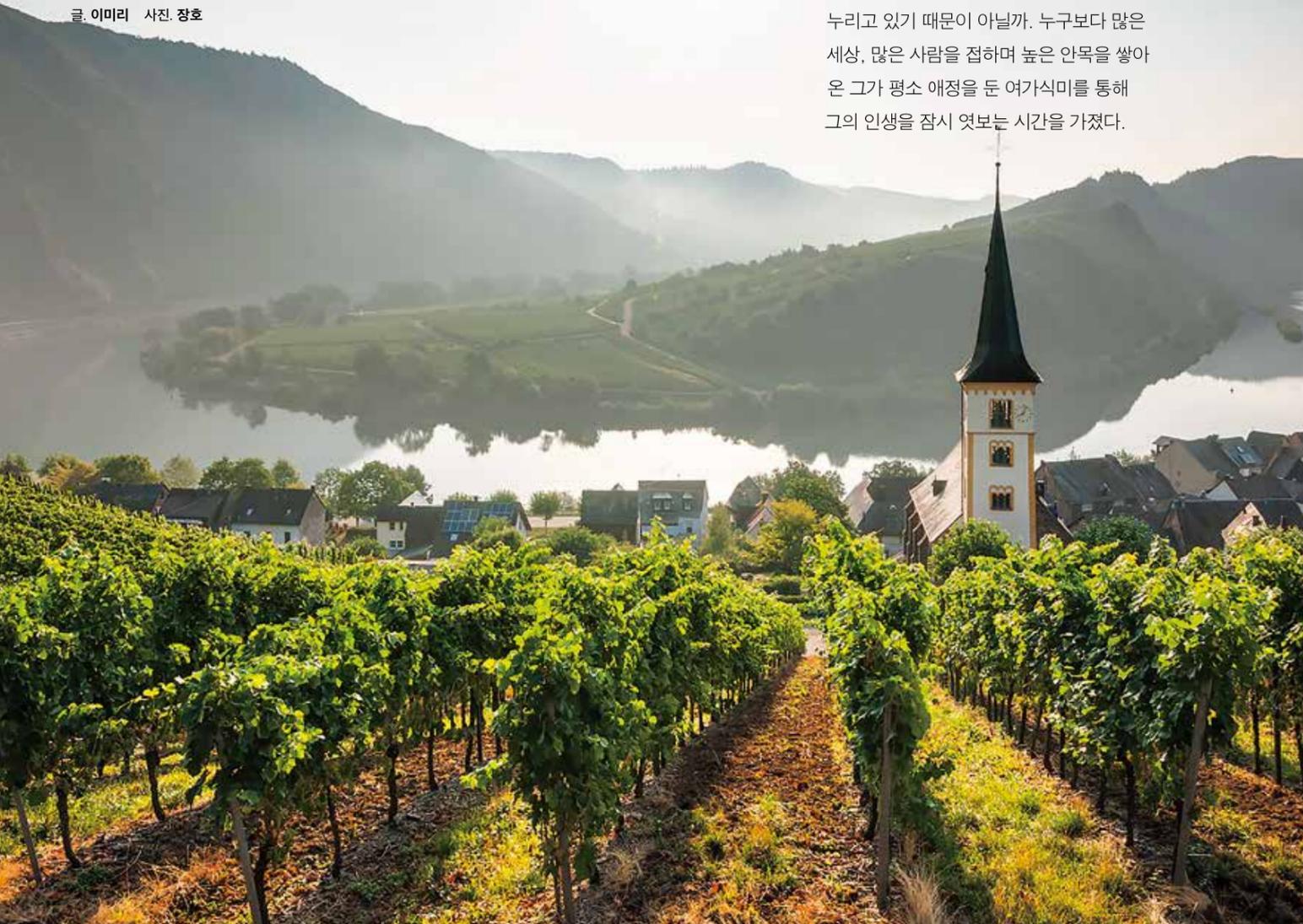
이원복 총장의

餘暇食美

글. 이미리 사진. 장호

餘 · 여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이라 말하는 작가이자 한 대학의 총장인 이원복. 50여 년간 이름 뒤에 항상 붙어 다니던 작가란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은 지금의 모습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재 또한 그의 지론에 따라 살며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누구보다 많은 세상, 많은 사람을 접하며 높은 안목을 쌓아 온 그가 평소 애정을 둔 여가식미를 통해 그의 인생을 잠시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속 제2의 고향

독일을 떠올리다

독일에 가면 유독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요. 독일의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10여 년의 유학 생활 동안 정도 많이 들고, 아직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독일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또 외국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이기도 하죠. 우선 인종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못 느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건 무관심에서 생기는 일종의 오해라고 봐요. 유학생의 입장에서 독일은 안전한 나라고, 또한 우리와 같은 분단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통일을 이룬 나라여서 더 애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독일에 들를 일이 있다면 백조의 성이나 모젤 강가를 한번 가 보시길 권합니다. 독일만의 느낌이 잘 녹아 있는 곳이거든요.

暇 · 가



내 인생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에 대한 애정은 참 남달라요. 첫 직장이자 첫 월급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직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또 이곳에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학장, 석좌교수, 총장까지 교편을 잡으며 해 볼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거쳐 온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보니 남다른 애정이 갑니다. 요즘 삶이 버겁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해 주고 싶은 말은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빈곤을 겪은 세대라 요즘 학생들처럼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겠지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남과 비교당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네요.

食
·
식



와인을 마시며

인생을
음미하다

지금까지 국내외 할 것 없이 100여 군데의 와이너리를 방문한 것 같아요. 칠레에서만 해도 30~40군데를 돌아봤지요. 와인과 관련된 책을 쓸 만큼 와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에도 지인들과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와인은 인생을 함께하는 편안한 친구이자, 언제나 설레게 하는 매력적인 존재예요. 추천할 만한 와인은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접근하기 좋은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칠레 쪽 와인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외국에서 와인을 마실 때 마리아주를 따지는 건 접시 문화, 음식을 각각 따로따로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식은 다 한 상에 차려 놓고 먹기 때문에 모든 음식과 맞는 와인을 찾기 힘들뿐더러 그 의미도 흐려지는 것 같아요. 와인을 마실 때 그 맛과 향을 분석하면서 마시기보다는 와인 그 자체를 가볍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美
·
미



이원복 총장
서울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독일 유학 중 들른 프랑스의 한 서점에서 만화의 위상을 알려준 『아스테릭스』를 본 후 만화가로 진로를 변경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 1,700여만 부가 팔린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의 작가로 활약하며, 교양만화의 신기록을 세웠다. 현재는 31년간 교수로 몸담았던 덕성여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50여 년 만화가

인생의
동반자, 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작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만화가야말로 정년 퇴임이 없는 제일 행복한 직업이니까요. 지금도 업무를 보는 책상 위 연필통에 펜이 항상 끼워져 있지요. 인생에서 펜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펜을 잡는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첫 마디에는 항상 굳은살이 박여 있고, 딱지가 생기고 그랬지요. 세상에 많은 장인(匠人)이 그러하듯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일에 대한 익숙함을 떠나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짜리 펜촉과 종이만 있으면 그릴 수 있는 만화만큼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일도 없을 겁니다. 50여 년 만화가로 산 인생에서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세상을 보며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 가며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영화 속 월터의 직장 <LIFE> 잡지사의 포토 -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



손 오코넬이 선택한 프로들의 카메라 NIKON F3/T

글. 소효령 사진 제공. 20세기 폭스코리아, 조장호

Scene of object.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사진작가 손 오코넬(손 펜)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을 포착하는 데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이 20세기의 카메라 니콘 F3/T를 선택했다.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전설적인 사진작가 손이 주저 없이 니콘 F3/T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 순간을 담아내는 니콘 F3/T

<LIFE>에서 16년간 최고의 사진작가들이 보낸 필름을 다뤄 온 전문가 월터는 변변한 여행 경험도, 인생의 에피소드도 없이 뉴욕의 빌딩 숲과 아파트를 오가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작가 손이 보낸 필름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중간호 표지에 쓸 것으로 월터는 이를 찾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이내믹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손을 만나게 된다. 손과 월터는 히말라야 산자락에 앉아 위장막을 쓰고 숨소리를 죽인 채 뷰파인더를 주시하고, 최고의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한다. 바로 이 순간, 그들 앞에 세워진 카메라가 라이카의 M6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니콘의 F3/T다.

중군기자들이 선택한 F시리즈

F3/T는 니콘의 기술력을 총동원한 플래그십 시리즈인 F시리즈의 세 번째 기종이면서 티타늄 보디를 채택한 모델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자로가 디자인한 아름다운 보디에 단단하고 가볍지만 가공이 어려운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특유의 색과 디자인이 돋보인다.

니콘의 F시리즈는 망치 대응으로 사용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기계적 안정성과 완성도 또한 높다. 이 덕에 신화적 명성을 얻은 F시리즈지만 1959년 니콘이 최초의 SLR 타입 카메라인 F1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F1은 뛰어난 카메라였지만 그때까지 대부분의 보도기자는 소형 카메라의 시조인 라이카의 카메라를 사용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중군기자들 사이에서 F시리즈가 정글이나 습지에서도 고장 나지 않는 튼튼한 카메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니콘은 전 세계 보도사진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최고의 기술력과 프로의 감성이 만나다

F3는 1980년부터 생산되어 2005년에 단종되었을 만큼 인기가 높은 스테디셀러였다. 니콘 최초로 전자제어식 셔터를 사용하는 등 생산될 당시 니콘의 기술력을 집약한 최고의 카메라였지만 그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 이후 F4, F5를 거쳐 2004년 F6를 출시했지만, 2006년 니콘은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LIFE>지가 종간된 이유와 같다. 디지털카메라가 주류가 된 시장에서 필름 카메라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감수성을 운운하며 대세에 저항하기에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시대다. 그러나 세계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표현하는 손과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감수성이 전부일 수 있다.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이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한 관성적 행위가 아니라 사진을 대하는 감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그가 필름 카메라의 기계적인 불편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 HINT!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유발한다는 이론(00효과).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고 업서를 통해 정답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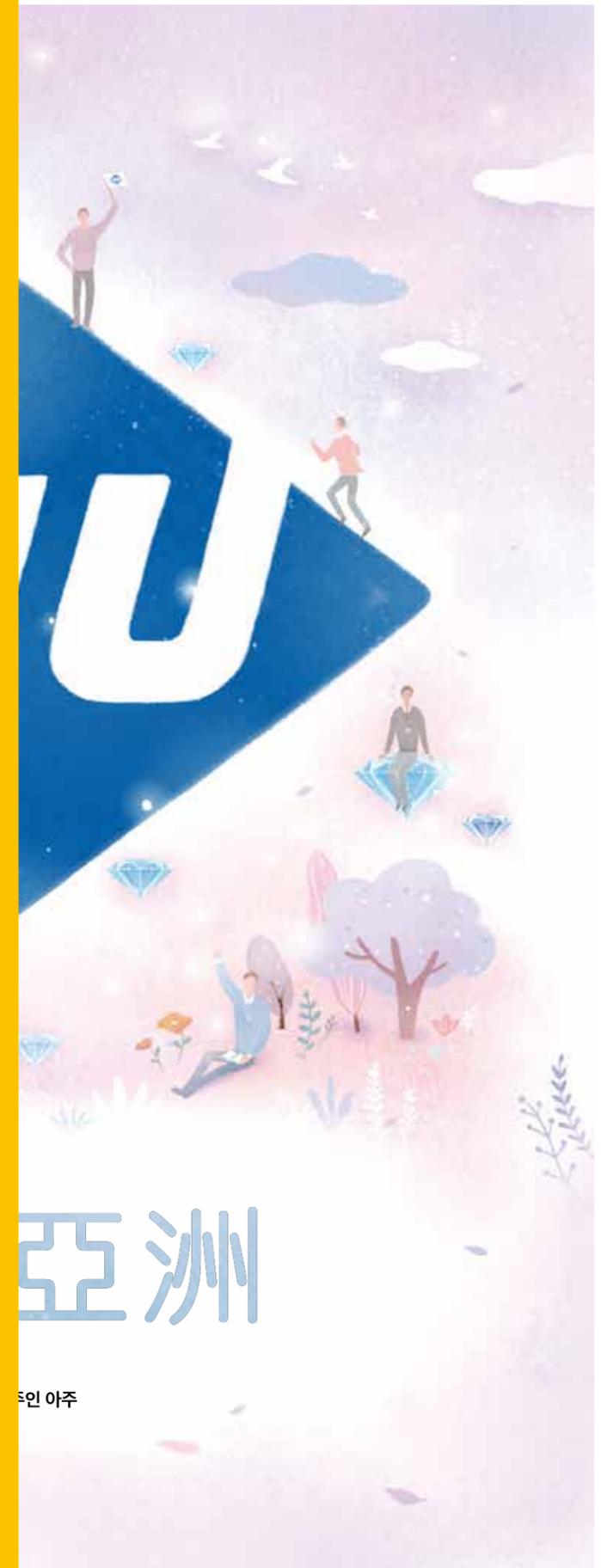
Aju + Style

아주 스토리

아주는 기대합니다.
아주 좋은 서비스
아주 좋은 사람들
아주 좋은 기업으로
고객들에게 기억되기를.

아주는 기대합니다.
아주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아주 좋아요를 외치면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아주는 기대합니다.
당신의 아주 좋은 날 속에
언제나 아주가 함께하기를.



亞洲

아주인 아주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 HI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복, 고객과의 소통,
국가발전을 더불어 실현하는 것.”

아주라는 사명과 함께 창업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아주의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亞細亞洲

아세아의 주인 아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

‘아주(亞洲)’의 사명에는 기업의 신조인 개척자정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 의지, 고객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회사의 이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모든 것들이 깃들여 있는 아주의 사명 스토리를 통해 아주를 더 가깝게 느껴보자. 글. 이미리 일러스트 김윤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기업

사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창업 시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한다. 아주는 시작부터 남다른 기업이었다. 1960년 아주산업을 설립해 레미콘, 아스콘, 파일 등의 전자재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부문과 호텔사업 부분, 부동산, 해외 자원 개발, 자동차 후방 사업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을 이룬 기업의 사례는 아주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주의 사업 확장은 아주의 창업 이념인 ‘개척자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故 문태식 명예회장은 국가 재건 사업이 한창이던 격동의 시기, 불모지나 다름없던 조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앞서간다’는 개척자정신을 기업의 창업 이념으로 삼았다. 당시 민둥산이었던 상황에서 귀한 나무를 사용하여 전신주를 만드는 것은 조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故 문태식 명예회장은 원심력 콘크리트 기술을 배우는 데 힘을 쏟았다.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 끝에 콘크리트 국산화에 성공했고,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1960년

9월 전자재 전문 기업 ‘아주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서울 망우리의 콘크리트 전신주 공장을 시작으로 산업 시장에 뛰어들어 아주는 1970년대 건설용 고강도 홈파이프 공급을 통해 최고의 전자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1980년 레미콘 공장 건립 이후 수원, 구로, 오산 등에 레미콘 공장을 건립함으로써 레미콘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그 후로 55년, 아주는 “기업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로 직원과 회사, 그리고 국가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파고를 함께 넘으며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역사와 전통, 신뢰와 믿음을 담은 블루 다이아몬드!

창업 당시부터故 문태식 명예회장은 아주를 국내에서 나아가 더 큰 세계를 향해 도전해 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아시아의 주인(줄여서 아주), 아세아주의 약칭이기도

한 아주(亞洲)로 사명을 정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을 지향한다’는 미래상을 사명에 담아냈다. 아주의 이름을 들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파란색 마름모꼴의 심벌 또한 아주의 정신을 잘 내포하고 있다. 블루 다이아몬드를 모티프로 한 심벌은 아주의 역사, 건실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을 상징하고 있다. ‘정복되지 않는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다마스(Adamas)에서 이름이 유래한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단단한 광물로 예부터 승리와 영원함의 상징으로 꼽혀 왔다. 오랜 세월 거쳐 탄생하는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아주의 마름모꼴 심벌은 아주의 오랜 역사와 전통, 건실함 등을 상징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 심벌 색상으로 선택한 파란색은 아주에 대한 신뢰와 믿음, 조화를 의미한다.

또한 파란 바탕에 쓰여진 AJU라는 글씨는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뚫고 비상하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개척자정신의 창업 이념과 세계로 뻗어 나가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비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친숙한 아주 사명, 고객의 삶에 행복으로 다가간다

사전적 의미로 '보통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이 단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근하게 많이 쓰이는 만큼 아주는 사외보인 『아주 좋은 날』, 아주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인 '아주 행복한 공부방', 아주의 인쇄광고 및 홈페이지 메인 카피 '어제는 조금, 오늘은 제법, 내일은 아주' 등을 비롯해 여러 사내외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아주'라는 단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평소 고객들이 일상에서 '아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아주'를 연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주 좋은 서비스', '아주 좋은 사람들'이 일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을 되새기며 더 탁월한 기쁨을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인쇄 PR 광고로 쓰고 있는 '어제는 조금, 오늘은 제법, 내일은 아주'는 고객과 함께 아주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아주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14년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 대상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아주의 창업 이념인 개척자정신과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는 아주의 정신 등의 기업 가치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현재까지 PR 광고 문구로 쓰이고 있다.

고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는 아주는故 문태식 명예회장의 '국가에 기여하고자 한 창업정신'을 이어가고자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한 진정성 있는 SNS 캠페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경일을 '아주 좋은 날'로 명명하고, 단순한 공휴일을 넘어 그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실시한 지난 3.1절 애국 캠페인이 그 시작이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10일간 아주 홈페이지에 게시한 '아주 좋은 날' 캠페인의 '좋아요'를 클릭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면 누구나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캠페인 참가자 100명에게 영화 <귀향> 관람권을 증정하기도 했다. 애국 캠페인의 반응은 뜨거웠다. 캠페인 기간에 9,073명이 아주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그 중 4,045명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나라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아주의 캠페인에 응원과 관심을 보여 주었다.

아주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갖게 해준 이번 캠페인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요 국경일마다 그날이 갖는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주 좋은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변하지 않는 아주의 가치, 100년을 잇는 원동력이 되다

아주의 많은 계열사들은 분야나 업무에 따라 그 본질을 연구하며 '아주'라는 사명의 가치를 그에 걸맞게 실천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 금융 계열사인 아주캐피탈과 아주저축은행 또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기업의 의미를 넘어 고객들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빌려주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 '아주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항상 고객중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아주캐피탈은 지난 2010년 아주 좋은 고객 서비스로 고객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고객 불만 접수 및 응대, 상품 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콜센터의 명칭을 '고객행복센터'로 변경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6월에는 업계 최초로 CCM(소비자 중심경영) 3회 연속 인증에 성공하고, 7월에는 5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캐피탈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아주저축은행도 '아주 행복한 사칙연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행복한 금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고객이 필요한 것을 더하고, 불편함은 빼고, 편리함은 배로 만들어 가며, 이웃사랑 나눔 시리즈를 통해 고객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금융이란 뜻으로, 행복한 사칙연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행복을 만들어간다.

창업 순간부터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복, 고객감동, 국가발전을 더불어 실현한다'는 아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처럼 사업, 문화, 금융, 교육 등 아주라는 이름이 있는 곳이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개척자정신을 근간으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끝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55년을 지나 100년 기업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아주. 변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아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내 꿈에 한발 더 가까이! 찾다, 다가가다, 이루다

꿈찾기 프로젝트

아주 행복한 공부방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꿈을 펼쳐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 1호점은 2013년부터 꿈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이뤄가는 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아주복지재단의 탄탄한 꿈설계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체험교육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낸 꿈찾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글. 이미리 일러스트 김윤희

아주 행복한 공부방

방과 후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서 나아가 이들이 구체적으로 꿈을 모색해 키워 나가며, 학습으로까지 연계해 성적 향상과 자존감을 높여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 2007 서초구 우면동 아주 행복한 공부방 1호 오픈
- 2009 서초구 방배동 아주 행복한 공부방 2호 오픈
- 2010 부천 삼정동 아주 행복한 공부방 3호 오픈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찾아주는 꿈 길라잡이

“방과 후 집에만 있었던 전과 달리 아주 행복한 공부방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가정 형편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제게 공부방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무척 소중한 곳이고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은 이처럼 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학습 지도,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복지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아주 행복한 공부방과 다른 공부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과 후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찾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다. 1호점의 꿈찾기 프로젝트, 2호점의 1인 1악기 교육과 연주회 실시, 3호점의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행복한 공부방 1호점은 지난 9년간 아이들의 생활 및 학습지도를 담당하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까지 신뢰받는 공부방으로 자리 잡았다. 1호점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들이 적성과 꿈을 찾고 그 꿈을 실제로 이뤄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꿈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꿈찾기 프로젝트란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돕는 3년 단위의 중장기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공부방 1호점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들로, 2015년까지 총 43명의 학생들이 꿈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꿈을 키워갔다.



꿈찾기 프로젝트 3년 중장기 프로그램

- 2013 찾아가자 나의 꿈 '자기이해' 중심의 진로 인식 단계
- 2014 다가가자 나의 꿈 '직업탐색' 중심의 진로 탐색 단계
- 2015 이루어가자 나의 꿈 '미래계획' 중심의 진로 계획 단계



아주 행복한 공부방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한 보금자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자기 이해를 위한 이론 수업부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파티셰, 쇼호스트 등의 다양한 외부직업을 체험해보는 기회와 함께 호텔조리, 경영학 등의 전공 대학생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아나

생생한 직업체험으로 꿈을 더 가까이!

아주 행복한 공부방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2013년 이론수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를 2014년에는 직업체험 활동 중심으로, 2015년에는 전공자·전문가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점차 형태를 바꿔나가며 사업을 운영해왔다.

운서, 작가 등의 전문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꿈을 더 가까이 체험해보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꿈찾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김소연 팀장은 “직업 체험 활동을 위해 아주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주 법무팀 분들은 재능 기부로 영어, 수학 지도를 해 주기도 했으며, 아이들이 선택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1명 이상씩 연계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업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꿈을 가까이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진로 탐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봉사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을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돌봐 달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꿈찾기 프로그램
김소연 팀장

가족들 앞에서 꿈에 대해 말하는 기회를 갖고 보니 그 전보다 내 뒤에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꿈을 찾고 이뤄 가는 길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찾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

아이의 꿈에 대해 전문가들이 직접 옆에서 알려 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고, 아이에게도 제가 말해 줬을 때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너무 좋습니다.

꿈찾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학부모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
아주 행복한 공부방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으로 나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공부방을 다니며 자신의 꿈을 찾아 대학을 진학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아이들에게 계획적으로 꿈을 꾸다보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었다.



꿈 동영상 만들기를 통해 꿈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고, 발표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 줍니다.

실제 5년 동안 공부방에 다니며 집중적인 학습지도 및 대학입시관리를 받아 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생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보살피느라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오며 자신의 꿈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다가 공부방을 통해 전기기능사라는 꿈을 가지고 전자계산기 기능사 자격증과 ITQ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기분야 의료기기 수출회사에 당당히 취업한 남학생의 이야기는 다른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직업 체험 후에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직업을 3가지 이상 탐색하고 스크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꿈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조경미 학생은 “스크랩 과정을 통해 요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과 요리사의 자질로 꿈히는 건강, 창의력, 인내심 등을 키워야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꿈에 대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공부방에서 꿈을 현실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꿈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아주복지재단은?



어려운 국내외 이웃들을 찾아 다양하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아주복지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아동 및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재단'이라는 비전 아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복지 프로그램에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한 파일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꿈 발표회’를 통해 꿈에 대해 자신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꿈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각자의 꿈을 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시청하며 그 꿈이 아이들만의 꿈에서 멈추지 않도록 가족구성원이 모두가 응원하고 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낀 학부모들 또한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동부의 한 학부모는 “여기서 한 직업 체험이 애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연계해 주신 공부방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 한 명은 “가족과 함께 내 꿈에 대해 말하다 보니 좋았고, 내 뒤에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한

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김소연 팀장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점차 밝아지고 변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꿈찾기 프로젝트와 공부방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해 많은 분이 좋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체험 중심 프로그램과 확실한 동기부여로 꿈에 대한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 준 꿈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아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라본다.

AJU NEWS

Volume 44 아주 뉴스

*아주 좋은 날, 2016 SPRING

www.aju.co.kr



[아주] 진정한 아주인으로 거듭나는 시간! 2016 아주 신규입사자 교육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동화 컬처빌리지에서 아주의 새로운 가족을 맞는 환영 행사가 열렸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3월까지 신규 입사한 46명의 아주인은 '2016 아주 신규입사자 교육'을 통해 아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아주인으로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앞서 비서실 이향철 실장은 "2016 아주 신규입사자 교육"은 업무 교

육시간이 아닌, 아주가 어떻게 시작된 회사인지, 또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 아주의 본질을 알아 가고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2박 3일 동안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아주는 물론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 탁용원 팀장의 '기업 문화와 핵심 가치' 강의를 시작으로 건

재, 금융, 자동차, 호텔, 부동산/자원개발, IT 등 아주의 주요 사업 부문과 계열사 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과 이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긍정과 기쁨'의 아주 정신 및 5대 핵심가치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그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았다.

-옆면에서 기사 계속.



"아주는 혁신으로 시작했습니다. 50년 걸려 만들던 나무 전신주를 단 5분 만에 만들어 낸 것이 아주입니다. 지금의 벤처기업들처럼 당시 아주는 혁신의 모범을 제대로 보여 준 기업이었습니다. 아주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혁신'이 있었기에 성공했고, 또한 그 '혁신'이 있었기에 하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문규영 회장

강의 후에는 문규영 회장과 신규 입사자들이 경영 철학을 함께 나누는 진지한 '만남의 시간'이 이어졌다. 신규 입사자들에게 혁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온 아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 문규영 회장은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번의 혁신에 만족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아주의 역사에서 '혁신의 선순환' 정신을 배우고 이어 가

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신규 입사자들은 강연이 끝난 오후부터 협업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아주의 보물을 찾아서'라는 일체감 형성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재무, 회계 지식을 정리해 보는 '경영회계 시뮬레이션' 등 여러 과정을 완수하며 2박 3일 동안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이번 교육은 평면적인 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아닌 공동의 가치 추구를 통해 협업 의지를 다지고, 개인적으로도 경영 관리 능력의 향상과 팀원들 간의 깊은 소통을 꾀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주] 새로운 정보·문화를 공유하는 문화의 장, '아주 조찬 세미나'

매달 첫째 금요일 청남빌딩 17층에서는 직책과 상관없이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하는 '아주 조찬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4월 1일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아주 조찬 세미나'는 임원 대상이었던 기존의 '임원 조찬 세미나'에서 명칭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첫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격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인공지능'.

국내 뇌과학,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김대식 교수를 초빙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시작으로, 최근 3~4년 사이 일부 IT 기업을 선두로 급속히 발전해 온 인공지능의 현 수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한 김 교수는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는 발전에 가속도가 더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인공지능이 당장 나와 상관없

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을 잘 관찰한다면 비즈니스의 또 다른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아주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아주 조찬 세미나'는 임직원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강연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아주저축은행] 저축은행 최초 '신용생명보험' 판매

아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방카슈랑스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지난 2월 2일 아주저축은행은 메트라이프생명과 방카슈랑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는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2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판하였다.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은 80% 이상의 장해 상태 또는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가입은 은행이나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30~55세면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최저 1년에서 최고 15년까지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가입 금액 또한 대출 금액 내에서 1,0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어 개인의 대출 상황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의 월 보험료는 사망보장형 가입 금액 5,000만 원, 5년 만기 전기납을 기준으로 45세 남성의 경우 1만 2,500원, 여성은 7,500원이다. 또한 중도상환을 통해 대출 잔액과 보험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해 필요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제휴 협약식에서 오화경 대표이사는 "이 상품이 아주저축은행 재무 설계 서비스에 획기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주캐피탈] 창립 22주년,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기념일



아주캐피탈은 지난 2월 17일 22번째 창립 기념일을 맞아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제철 과일과 도서 등을 담은 선물 박스를 준비했다. 창립 기념 공식행사 대신 매년 창립 기념일에 이주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환경의 주변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아주캐피탈 이윤종 대표 외

임원진 15명이 서울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성장기 아이들 몸에 비타민을 채워 줄 싱싱한 제철 과일과 마음의 양식을 채워 줄 어린이 권장 도서, 금융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해 줄 금융 경제 보드게임까지 총 3가지가 든 선물 세트를 포장하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기념일을 보냈다. 포장한 선물은 총 120세트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울 중랑구의 120가구 어린이

에게 전달되었다. 아주캐피탈은 창립 기념일마다 하는 나눔 봉사활동 외에도 금융 이해도가 낮은 은퇴 장년층을 위해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 전 직원 1인 1봉사활동을 하는 '사랑의 릴레이' 등을 펼치며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아주저축은행] 리차드학교에서 찾는 일상의 행복



지난 3월 18일 아주저축은행이 마련한 '리차드학교'에서는 향긋한 향이 가득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향초 만들기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표정은 더없이 밝고 활기찼다.

리차드(Rechad)학교란 '기분 전환(Re-fresh)'과 '변화(Change)', '꿈(Dream)'의 첫 글자를 딴 직원 참여 프로그램으로, 일과 취미생활의 균형을 맞춰 직장 생활속에서 행복감을 더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해 7월 시작해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풍선 아트부터 와인 아카데미, 쿠키 만들기, 연필 스케치 등을 진행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은 마음으로 바라고만 있었던 취미를 직접 즐기며 삶의 또 다른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리차드학교의 여섯 번째 프로그램인 '향초 만들기' 수업은 참여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서 재시행한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유미 매니저는 "향초는 향도 좋지만 방향제 못지

않게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예요. 이번 수업에서는 드라이 플라워 장식도 배웠으니, 나중에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라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했다. 아주저축은행의 사내 행사는 본사 직원이 원하는 날짜, 시간을 조율해 현장을 찾아가는 '온필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바쁜 현장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리차드학교 덕분인지 아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GWP(Great Work Place) 코리아 선정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금융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코코몽 에코파크 패키지 출시



아이들과 여행하기 좋은 따뜻한 5월 어른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을, 아이들에게는 신나고 재밌는 탐험을 선사하는 하얏트 리젠시 제주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아이들을 위한 '코코몽 에코파크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 패키지에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객실에서의 1박과 테라스 카페 아침 식사 제공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성인 2명과 함께 투숙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2명 포함). 호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코코몽 에코파크 제주 입장권 2매와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 디자인한 코코몽 에코파크 제주 티셔츠 1장도 선물로 증정한다. 코코몽 에코파크는 귀여운 코코몽 캐릭터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며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키즈 테마 파크로, 다양한 놀이 기구와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또한 올레길 5코스과 연결된 산책로, 오가닉 차를 마시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에코카페가 있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패키지 23만 5,000원부터,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아주캐피탈]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위한 'SNS 캐릭터 공모전' 개최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온 아주캐피탈이 보다 진정성 있는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SNS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오토금융사업과 친화적 금융사 이미지를 접목한 캐릭터 디자인과 그 이름이다. 향후 선정된 캐릭터는 아주캐피탈 SNS 이벤트와 대외 프로모션 등 고객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3팀을 선정하고 각각 200

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심사를 거쳐 5월 첫째 주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주캐피탈 커뮤니케이션팀 김동규 팀장은 "아주캐피탈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 SNS에서도 고객들과 직접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소통하고자 한다"며 "고객들이 직접 만들어 준 캐릭터로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과의 소통을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참가 자격에 제한은 없다.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에서 캐릭터 공모전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5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신청 :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blog.ajucapital.co.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공모 일시 : 5월 13일까지
출품작 접수 : 1210122@ajucapital.co.kr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한 권의 사보로 다양한 색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주의 『아주 좋은 날』은 아주 좋은 하루하루를 설계하는 매력이 있어 항상 반갑습니다. 특히 aA 디자인 뮤지엄 김명한 대표의 컬렉션은 일상이든 여행이든 그곳이 어디든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분의 여가식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그만의 매력이 부러웠습니다. 선아영 님 · favorite things

아주의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청남 문태식 명예회장의 소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개척자정신을 몸소 보여 주시고 쉽지 않은 기부까지, 그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명예회장이 아주인에게 지표를 보여 주고 떠나신 것 같아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아주에 관한 기사를 좀 더 많이 접하길 기대합니다. 박춘연 님 · AJU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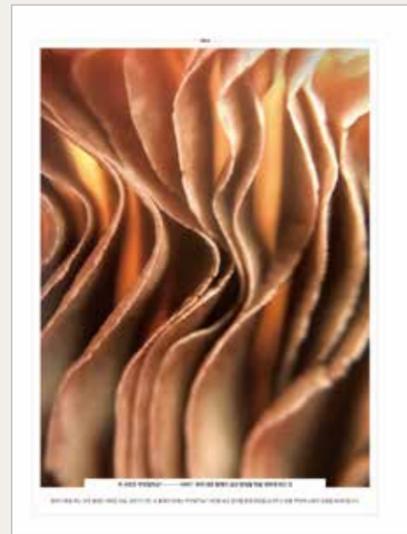
한파가 몰아치던 1월의 끝자락에 『아주 좋은 날』이 선물한 푸릇푸릇한 나무 표지가 문득 있고 있었던 봄을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 방랑 DNA-금원 vs 나혜석' 기사를 꼼꼼히 보았습니다. 나혜석 작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금원은 생경했는데, 시대를 앞서간 두 여인을 엮어서 보니 참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숨어 있는 인물'을 많이 접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김자영 님 · INSIGHT

『아주 좋은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새로운 기사와 마음 훈훈한 나눔의 이야기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주'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사랑의 부싷돌' 기사를 읽으니, 나눔은 직접 참여하는 사람과 이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탄 한 장을 통한 열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부싷돌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은주 님 · AJU SHARING

더 나은 『아주 좋은 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 | |
|---|---|
|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만 원권) |
| 이문기 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황득실 님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이미연 님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정혜영 님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김자영 님 강원 강릉시 입암로 | 선아영 님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박춘연 님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이은주 님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김영채 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김현진 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

지난 호 IDEA 정답 공개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HINT! 로마 네로 황제가 금과 맛바꿀 만큼 귀하게 여긴 것



정답 : 버섯
버섯갓의 뒷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정답을 맞으신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손성섭 님 대전시 동구 은어송로
나별아 님 부산시 사하구 감내로

『아주 좋은 날』 vol.44호는 '색다른 시도'를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를 읽으신 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열정이 싹트길 바랍니다.

아주산업	아주베트남	아주컴보디아	브이샵	아주지오텍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IB투자	아주수원정비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호텔앤리조트	하얏트리젠시제주	아주프론티어	아주글로벌	아주큐엠에스	아주복지재단

What is success

무엇이 성공인가 글. 랠프 월도 에머슨

자주 아주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도 참아 내는 것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는
정원을 가꾸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수선화
그림 송훈



솔패랭이
그림 송훈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아주 작은 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아주 커뮤니케이션팀
06626

『아주 좋은 날』 vol.44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 주십시오.

이번 호 기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과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이번 호 기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IDEA 페이지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아주 좋은 날』을 제작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주 사외보 『아주 좋은 날』 고객정보수집동의 약관

‘아주그룹’(http://www.aju.co.kr 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취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2. 수집목적

성명, 주소 : 정기구독 배송을 위한 배송지의 확보

전화번호 : 경품 배송 시 연락처의 확보

3.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보존 근거 : 회사 내부 방침

보존 기간 : 사용자 요구 시 즉시 파기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사외보 배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제공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이DM	발행물 배송	성명, 주소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5. 『아주 좋은 날』 사외보 신청 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주그룹 홈페이지(www.aju.co.kr)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님의 정보수집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아주 좋은 날』 배송이 어렵습니다. 구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확인 후, 동의 항목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